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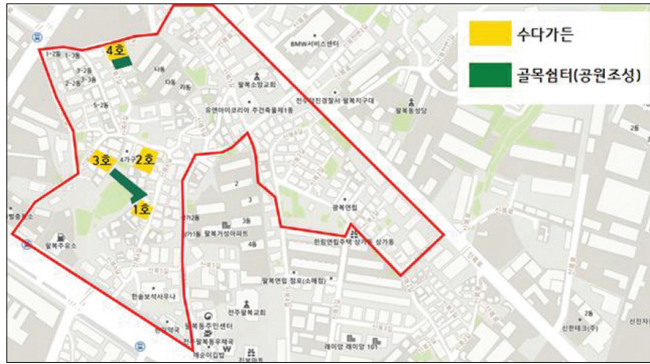
# “팔복동 빈집재생, 새로운 도시재생 성공모델로”

### 우범기 전주시장, 빈집→카페·음식점으로 탈바꿈한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방문

우범기 전주시장은 3일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으로 빈집을 개보수해 지난달 30일 부터 오픈한 카페와 음식점으로 탈바꿈된 4곳의 상가를 일일이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상인들과 마주한 우 시장은 상가 운영과정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범기 시장은 “여기 새 희망을 품고 상가 운영을 시작한 상인들은 지난 몇 년간 전 국민을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한 코로나19 기간에 고통을 겪었던 분들로 알고 있다”면서 “본인에게 기회와 희망을, 마을에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명소, 맛집이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팔복동 빈집밀집구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위치도

역 내 빈집 4곳을 카페와 음식점으로 리모델링 지원했다.

이와 병행해 지난해 10월부터 팔복동 주민센터 일원의 빈집 4개소를 공간 제작 전문기업인 (주)글로우서울과

함께 카페 2개소(약과, 미트파이)와 음식점 2개소(전, 술밥)로 탈바꿈시켰다.

시는 지난 5월 12일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에서 우범기 시장과 4명의 방송

출연자(박나래, 채정안, 신동, 김민석), 공간제작을 담당할 (주)글로우서울 대표와 함께 상가 운영자 선정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신청한 179팀의 신청자 중 전주시 거주 3개 팀과 전주시 전입 예정인 타지역 1개 팀이 운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메뉴 제작기법과 고객 응대 서비스교육을 마치고 7.30일 부터 오픈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는 이런 노력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제2의 전주한옥마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팔복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은 단순한 공간재생을 넘어서 지역 상권의 회복과 자생적 성장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도시재생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곳을 시작으로 팔복동이 현재 상황에 맞는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한 전주시설공단 구대식 이사장

##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 전주시설공단, 일상생활 속 사용 줄이기 시민 참여 호소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도 ‘1회용품 ZERO(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공단은 3일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영상을 공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영상 속에서 구대식 이사장은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고!’란 캠페인 구호를 외치고, 1회용품 제로 캠페인에 대한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시작한 환경 보호 캠페인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메시지

를 동영상에 담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원장 천왕우)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기관으로 ‘울주군시설관리공단’과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두 곳을 지명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한옥마을 찾는 세계 청소년 안전 확보 위해 현장점검

### 우범기 시장, 현장상황실 점검 등 빈틈없는 대응 주문

전국적으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캠프’ 기간 중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세계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일 세계캠버리에 참가한 세계 청소년들이 다수 찾는 전주한옥마을 일대를 거닐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우 시장은 한옥마을 방문객이 시각·체감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긴급 지시해 설치된 열음길 조성 상황을 살피고, 위급한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현장상황실을 점검하는 등 세계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확인했다.

특히, 세계캠버리를 즐기는 세계 청소년에게 한복·한옥의 매력을 선물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연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시는 지역연계사업을 통해 하루 400명의 세계 청소년에게 전주의 맛과 멋, 그리고 전통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시는 안전확보를 위해 집결지인 국립무형유산원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했고, 이곳에서는 보건소 의료공무원(2명)과 자원봉사자(13명), 경찰(1명) 등이 상주하면서 민약의 사고에 즉각 대응한다. 폭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결지인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 토비와 한벽문화관 세미나실, 공예품전시관 누리관, 경기전여행자라운지 1·2층, 한옥마을도서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일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캠프’에 참가한 세계 청소년들이 다수 찾는 전주한옥마을 일대를 거닐면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전주의 전통문화와 맛, 멋을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세계 청소년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전주는 천년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간직한 글로벌 역사문화 관광지인 만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서 다시 오고 싶은 전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하루 이틀 지원론 안돼” 캠퍼리 조직위, 전북의협 지원 거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퍼리 조직위원회가 온열질환자 속출과 관련해 의료인력 추가 확보 배치를 밝혔지만 돌연 전북의사협회의 의료봉사 지원은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봉사 기간이 너무 짧아 관리가 어렵다는 게 이유다.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캠퍼리 조직위는 국방부로부터 의사 4명과 간호인력 12명을 지원 받았다. 이들은 캠퍼리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온열질환자 치료를 담당한다. 캠퍼리 조직위는 전북도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력 충원을 요청했고, 도는 전북의사협회에 협조를 부탁한 상태다.

전북의사협회는 의료봉사 형태로 캠퍼리 현장에 의료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김종구 전북의사협회장, 박용현 전북의사협회 총무이사, 정경호 전주시의사회장,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총무이사 등이 새만금 캠퍼리 현장에 의료봉사를 나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조직위는 이를 취소했다. 하루 이틀 의료봉사는 매번 안내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관리가 안된다는 게 이유다.

조직위는 도에 오는 12일까지 매일 근무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의 의료인력에 대한 단일한 대처는 대회 전부터 시작했다.

당초 도와 전북의사협회는 조직위에 의료인력 추가배치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직위는 “120%의 의료인력이 확보돼 추가 의료인력 확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상 캠퍼리가 시작되자마자 온열질환자는 속출했고, 이들을 돌보고 치료할 의료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졌다.

도 관계자는 “조직위에서 오는 12일까지 매일 현장에서 근무 할 수 있는 의료인력 배치를 요구해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

## 전주 에코시티 2단계 구역 내 체비지 매각 추진

전주시는 전주 북부권 개발의 핵심 사업인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이 2024년 3월 준공을 앞두고 2단계 구역 내 체비지 매각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매각 대상인 2단계 부지는 에코시티

1단계 구역의 서측, 백석저수지 남측의 옛 항공대대가 위치한 곳으로 단독주택용지 120필지, 준주거용지 54필지, 기타용지 15필지로 총 189필지(18만 5,093㎡) 규모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매각에 착수해

총 90필지는 매수자 결정 후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99필지는 2회에 걸쳐 입찰을 통해 9월까지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일반 공개경쟁 전자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번 매각공고(지난달 31일)에 따른 입찰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24일 오후 2시까지이다. 개찰은 8월 25일이며 추후 매각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개발과(063-281-5177)로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및 온비드(www.onbid.co.kr) 인터넷 입찰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제8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6시~8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진 국민MC - 서정우  
가수 - 백미현(난바람, 넌눈물) 이태원(술개, 여인아) 박영일(축제) 노스텔지어(별미소) 백영주 최영준